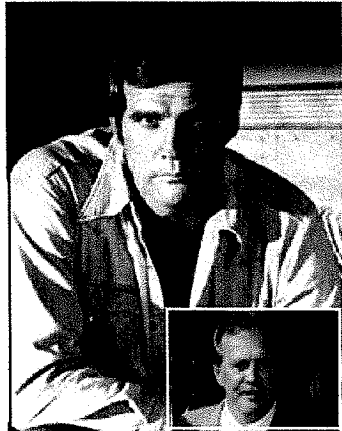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꼭꼭 눌러쓴 어머니의 편지

박형준

냉장고 보약해다 노릇으니  
 낸비다 뜻뜻하게 뒤먹어라.  
 형준아 너며살리아,  
 이십세가 넘머지면 철도 다러가는데  
 궁구 잠이나 자고 집안 엉망이고  
 더러우워 볼수가 업구나.  
 어머니는 올때마닥 실망이 되는구나.  
 멋시든 생활력도 강하고 약기야한다 말리지.  
 썩키 버리고 그리서 업는 살림이 엇딴케 살렷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가슴조리면서도 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심장이 상하여 울울짐나서  
 견딜수가 업서.  
 제발 어머니 말좀 드러라

자식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는데 맞춤법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은 어머니. 허나 글쟁이 아들 시인은 이리저리 형편을 껴맞추어 보고서야 겨우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겠지요.  
 부모의 사랑은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느껴지는 사랑인데 그 사랑 느낄 때 쫓으면 그들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십니다.  
 가난하지만 어머니가 있어 부자인 시인이 새삼 부럽습니다.



◀그리운 날의 흑백TV ▶ 600만불의 사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주비행사 스티브 오스틴은 인조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그가 가진 초인적인 능력은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때면 '뽀뽀 뽀뽀' 하는 전자파 소리와 함께 눈에서는 십자형 초점이 그어지면서 빛이 났습니다.  
 조금은 황당한 설정이었지만 권선징악이라는 스토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에게 한 줄기 청량제였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소머즈' 는 나중에 따로 외화로 만들어져 600만불 사나이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늙어 가고 있는 모습에서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못하는 세월임을 새삼 느낍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3월 5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개' 라고 하시며 왜 그리 혹독하게 하셨나요..  
 그녀의 자녀가  
 흉악한 귀신들려 죽게 된 것을 주님 알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거절하는 주님의 음성에(마15:26) 그녀는 간이 오그라 들었을거예요.  
 앞이 캄캄했을거예요.  
 더군다나 치욕스럽게도 '개' 같은 자라니...

주님 아셨지요?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여인이 고백할 것을 아셨지요?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것이면 그것이 곧 '생명' 임을,  
 그 믿음 소유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지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결사적인 믿음을 배워요.  
 별거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다 핼개치는 자기부인을 배워요.  
 낮아지고 낮아진 곳에 비로서 풍성히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봐요.

사랑하는 주님  
 나중에 아주 나중에 참담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나 같은 사람 위해 이렇듯  
 곳곳에 믿음을 증거 해 놓으셨군요. 곳곳에 천성 가는 이정표 세워두셨군요.

주님 가신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따라오라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여러 모양으로 흔들려도 굳게 서서 주님 잘 따라오라고.

내 생의 생명싸게이신 주님이시여  
 주위 곳곳에 뿌려놓으신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  
 생명으로 들이시는 나의 주인이시여

존귀와 찬양을 받으심이 합당한 내 영혼의 주인이시여.....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도자
찬송 Hymn	3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9 (시 23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특송 Hymn		아동부
기도 Pray		노은숙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12:1-2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믿음의 축복	김병호 목사 뉴질랜드 은누리교회
찬송 Hymn	364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3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안 내
26	지찬영	정성호	<본당> 김순자 노은숙
5	노은숙	정이지	
12	박일영	조은희	<현관> 박일영 최재학
19	이광희	조재근	
26	이규임	차현주	

### ◆3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5	성찬주일 사순절시작(1) 월초새벽기도회(1) 남선교회(3)구역예배(10)
12	민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26	이삭줍기주일 수요수도원(29)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 이민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교우소식
  - \*<이사> 김경구, 강은미 집사. ☎415-0607. 19 Kittiwake Dr. Albany
  - \*<Wellington으로..> 김철취(김교섭 장로, 정희자 권사 아들). NZ 교육부에 근무하기위해 Wellington에 거주.
  - \*<등록> 김미란 집사(3여선, 1구역)조상형. 득균 ☎274-5377. 728 Chaple Rd. Howick
-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4월 15일> \*주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주님 위해 절제의 생활하다보면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건한 기쁨이 있습니다.
- 선교회 모임
  - \*제2여선교회 <1953년생-1957년생>: 오늘 Tea Time 을 하면서 잔디밭에서 모입니다
  - \*제5남선교회 <1962년생 이후>: 오늘 저녁7시. 박덕철 집사 자택
- 정기구역예배 <금요일 저녁 7:30>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와 즐거움이 있는 구역모임입니다.
- 결식자급식봉사 <11일 (토) 오전 10시-오후 1시>
  - \*Homeless를 위한 점심식사 제공 봉사입니다. 1-2명의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문의> 임숙경 집사(479-9876)
-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찬양, 기도, 말씀으로 내 믿음 다져가십시오.

### 아름다운 끝

김성국

가을 보이는 호젓한 길가  
반쯤 익은 산딸기 있어  
따 먹고 가자했습니다.  
득 있는 열매면 어찌냐며  
아내가  
다급히 말합니다.

우리 비록  
하루 하루에  
가슴 졸인 삶 실었다해도  
몰래 익은 산딸기  
소년소녀처럼 따 먹다  
산이슬처럼 떠났다고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다움이고 싶었습니다.

우체통에 기다려지는 편지보  
다 고지서가 더 자주 오는  
삶,  
꿈보다는 추억이 더 많이 쌓  
여지는 삶,  
가야하는 길이 걸어온 길을  
어느새 추월한 삶,  
세월이 왜 이리도 빠르냐면  
서 빨리 시간이 가기를 기다  
리던 그 시절이 좋아진 삶...  
그러나 가을 빛으로 단풍드  
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인생의  
후반전도 아름다운 삶임을 배  
웁니다.